



## 1-4.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 [첫 읽기\_ 스킵과 스캔]

독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을 읽

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특징	내용
정의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출발점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
방법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들이 나타난다.

1. 글의 전체 구조 파악 -> 필요한 부분 선별 ->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 탐색
2.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3. 글 이면의 내용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4.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
5.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 ->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
6. 의미를 기록 -> 읽은 내용의 망각 방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
7.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독서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특징	내용
구성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출발점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
방법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음
의미 구성	개인의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됨
기록의 역할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함
발전 형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됨
의미 구성의 사회적 차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짐

- 개인의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
-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 기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록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활용되며,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룹니다. 따라서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것은 전통적인 권유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내용	특징
의미 구성	개인의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됨
기록의 역할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함
발전 형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됨
의미 구성의 사회적 차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연관성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 맥을 같이함

- 개인의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
-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

- 기록의 역할: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함
-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됨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4~9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흠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먼의 과정 이론이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서양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새먼의 과정 이론은 이러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내용	설명
----	----

내용	설명
문제	인과 관계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
과학적 세계관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인과와 과학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새먼의 과정 이론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 존재
-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 불가능
-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 존재
- 새먼의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 [첫 읽기\_ 스킴과 스캔]

과정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닙니다. 인과적 과정은 두 과정이 교차하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어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내용	설명
과정 이론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을 과정으로 보는 이론
차이점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는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
대상의 궤적	날아가는 야구공,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에 따라 시공간적 궤적을 그림
인과적 과정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고, 그 곳에서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 가능한 과정

- 야구공이 날아가는 과정은 시공간적 궤적이다.
-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 과정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을 도입하면 인과관계를 갖는 과정이 된다.
-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4가 과정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

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첫 읽기\_스킴과 스캔]**

바나나가 이동하는 과정과 그림자가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이들과 교차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중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으로,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결과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과정	특징
과정 1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인과적 과정
과정 2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베어내는 과정으로, 과정 1과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됨
과정 3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
과정 4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으로, 과정 3과 교차하여 표지를 전달할 수 없음

인과적 과정:

-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과정 1)

과정 1과 교차하는 과정:

-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과정 2)
- 과정 2로 인해 과정 1이 인과적 과정임이 강화됨

그 외의 과정:

-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 (과정 3)
-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과정 4)
- 과정 3과 교차한 과정 4는 과정 3으로부터 표지를 전달할 수 없음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이 문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내용	설명
대상	과정 이론
한계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
예시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

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논의인 재이론에 대해 다룹니다. 한대의 동중서에서는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으며, 군주의 실정에 따라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을 통해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구분	내용
대표적인 논의	재이론(災異論)
천견설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
천인감응론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
재이론 체계화	천인감응론과 천견설 결합
군주의 실정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재앙을 내림
재이의 의미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

- 재이론: 동아시아에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논의
- 천인감응론: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이론
- 천견설: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이론
- 군주: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 재이: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첫 읽기\_ 스킵과 스캔]**

재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읽기\_ 상세 읽기]**

내용	평가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	신하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
재이 발생 → 군주의 직언 요구 → 신하의 전통적 대응	구체화된 전통
동중서 이후	개별적 대응 방식 억지
개별적 대응 방식	예언화 경향
재이 → 인간사의 징조, 인간사 → 재이의 결과 대응	풍조 발생
백성 미혹	군주의 직언을 하는 신하 탄압 빌미

-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음
-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음
-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음
-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음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재이론과 천인감응론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비판, 그리고 주희의 대응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주희는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켜 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켰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특징(feature)	내용
해석	비판의 대상
천인감응론	부정

특징(feature)	내용
정치 현장에서의 유지	여전히 존재
주희의 견해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음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	
군주의 대응 방법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킴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	연장

- 예언적 해석 -> 비판 대상 -> 천인감응론 부정
- 주희의 경향 수용 ->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음
- 재이를 이치로 설명하기 어려움 -> 자연 현상으로 간주
- 군주의 대응 기제 -> 재이론의 유용성
- 재이론 폐기 -> 신하의 정치적 기제 상실
-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 쌓이면 ->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 발생 -> 재이론의 전반적 대응설 제시 ->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 ->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 연장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0~13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

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형벌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의 지식 사회를 매료시켰으며, 계몽주의 사조에서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토대로 형벌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내용	설명
출판 연도	1764년
저자	체사레 베카리아
책 제목	범죄와 형벌
반향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됨
주장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전제됨
자유와 행복 추구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함
자유 일부 양도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설명됨
주권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함
형벌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으로 설명됨

내용	설명
형벌권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움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한 형벌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 따라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㉞**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㉞**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 [첫 읽기\_ 스킵과 스캔]

형벌의 목적과 범죄 예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시 피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입니다. 또한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항목	내용
의미	형벌은 범죄로 인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며,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
목적	범죄자가 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
손익 관계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크기만 하면 달성됨
처벌 체계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함
의견	범죄를 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봐야 함
	형벌은 범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함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됨

베카리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2.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3.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4. 범죄를 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봐야 한다.
5.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선정해야 한다.
6.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㉔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㉕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㉖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읽기\_ 스킵과 스캔]**

형법학자 베카리아의 주장과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적인 형벌이 더욱 효과적이며,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그의 이론은 응보주의에서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 읽기\_ 상세 읽기]**

이론	내용
베카리아의 주장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형벌의 강도 vs. 지속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형벌의 강도 vs. 지속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이론	내용
지속의 효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가치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베카리아의 이해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범죄 예방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값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카리아의 논증:

-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므로 형벌 제도도 인간의 감각에 맞추어 운용되어야 한다.
- 지속적인 형벌이 형벌의 강도보다 더 큰 억제 효과를 갖는다.
-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의 고통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
- 범죄 예방은 형벌로 되값아 주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4~17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 [첫 읽기\_스킴과 스캔]

PCR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PCR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로,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구성	내용
주형 DNA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
표적 DNA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프라이머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
DNA 중합 효소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

-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의 개발자 케리 멀리스가 199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 주형 DNA는 이중 가닥 DNA 중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PCR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PCR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해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가 결합하여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기며, 이러한 과정이 사이클을 이루며 진행됩니다. 전통적인 PCR은 형광 물질을 사용하여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과정	설명
열 가열	이중 가닥의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
프라이머 결합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 결합
DNA 복제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 생성
사이클 수행	일정한 시간 동안 사이클을 수행하며 표적 DNA의 양 2배씩 증가
PCR 종료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 종료
결과 확인	전통적인 PCR에서는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 확인

PCR 과정:

1. PCR은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여 두 개의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2. PCR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3. PCR은 전통적으로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첫 읽기\_스킵과 스캔]

PCR 기술 중 실시간 PCR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중 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 있다.

###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특징	내용
개발 과정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일으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함

특징	내용
발색 물질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함
주의사항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남

- PCR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PCR가 개발됨
- 실시간 PCR에서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용됨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
-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함
-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남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첫 읽기\_스킴과 스캔]**

형광 표식 탐침이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를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PCR 과정에서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특징	내용
설계	특정 주제에서 프라이머 결합을 막는 부위에 결합하도록 설계
결합	단일 가닥으로 된 형광 표식 탐침이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
분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
발색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

- 형광 표식 탐침은 특정한 타겟 DNA 부위에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 PCR을 통해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한다.
-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 이를 통해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첫 읽기\_스킵과 스캔]**

PCR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PCR은 DNA를 이용하여 유전자 복제, 질병 진단 등에 사용되며,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값을 이용하여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_상세 읽기]**

설명	내용
발색도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
필요한 사이클 수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짐
Ct값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표준 시료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시료
미지 시료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시료
표적 DNA 농도 계산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여 계산
활용 분야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
장점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 가능

-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
-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됨



-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이 달라짐
- 표적 DNA를 검출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함
-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해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음
- PCR는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활용됨
-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음